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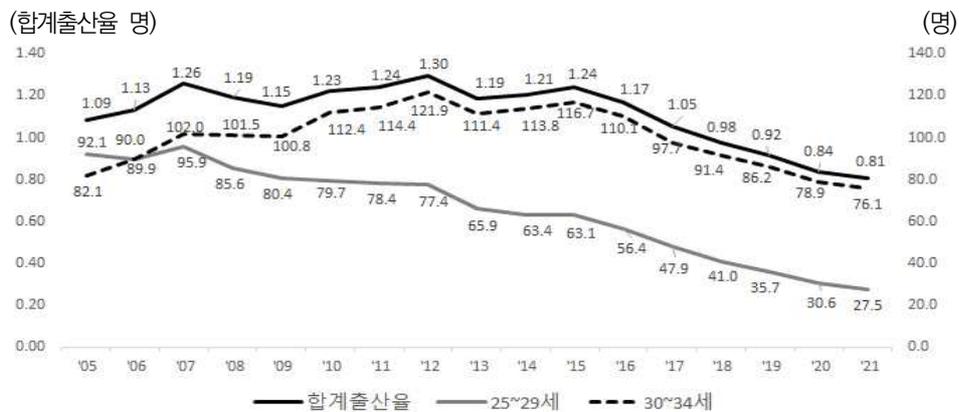
- 본고는 ‘합계출산율’을 산출하는 방식을 활용해서 출산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비중과 혼인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남녀의 비중이 어떻게 예상되는지 산출해보고자 함
 -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을 특정 연도의 연령별 출산율로 살아갈 경우 몇 명의 아이를 출산할 것인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연령별 인구 수와 관계없이 연령별 출산율의 단순 합산으로 산출됨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에는 0.81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음
 - 인구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몇 명의 아이를 낳을 것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혼인을 할 확률과 출산을 할 확률을 산출하는 것도 매우 유의미할 것임
 - 본고는 연령별 첫 번째 아이 출산율의 합계를 통해 가칭 ‘출산참여 확률’을 산출하고, 연령별 첫 번째 혼인율의 합계를 통해 가칭 ‘혼인참여 확률’을 산출함
- 여성이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출산을 할 확률인 가칭 ‘출산참여 확률’은 2015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2020년부터는 0.5(50%) 미만으로 낮아짐
 - ‘출산참여 확률’은 2020년 0.48, 2021년 0.46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절반 이상의 여성이 출산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 남녀가 평생 동안 한번이라도 혼인을 할 확률인 가칭 ‘혼인참여 확률’은 하락세를 지속하여 2021년에는 남성 0.46, 여성 0.48을 기록함
 - 이는 남성의 54%, 그리고 여성의 52%가 평생 동안 한 번도 혼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혼인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함
- 구조적인 저출산으로 인한 다음 세대의 급속한 위축은 우리나라의 복지가 이미 보장 확대보다는 장기적으로 현재의 보장 수준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할 것임을 의미함
- 인구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 내부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보다 전향적인 이민의 수용이 불가피할 것이며, 따라서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준비가 필요할 것임



1. 합계출산율의 개념

- ‘합계출산율’은 연령별 출산율을 단순 합산함으로써 ‘한 여성이 평생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세계 최저 수준인 0.81을 기록함(그림 1) 참조
 -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을 특정 연도의 연령별 출산율로 살아갈 경우 몇 명의 아이를 출산할 것인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연령별 인구 수와 관계없이 연령별 출산율의 단순 합산으로 산출됨
 - 한 사람이 한 시점에 모든 연령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계출산율의 개념에는 한계가 있으나, 단순하면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만큼 본고는 이러한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 본고에서는 5세 구간의 자료를 활용하는데, 이 경우 각 연령대의 출산율 합계에 5를 곱하는 방식으로 합계출산율을 추정¹⁾할 수 있음
 - 합계출산율은 핵심적인 출산 연령대인 30~34세²⁾와 매우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1〉 합계출산율과 25~29세 및 30~34세 출산율



주: 합계출산율은 1명당 출생아 수, 연령대별 출산율은 1,000명당 출생아 수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른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본고는 ‘합계출산율’을 산출하는 방식을 활용해서 우리나라 여성 중 출산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혼인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남녀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산출해보고자 함
 - 인구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한 여성이 몇 명의 아이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평생 한 번이라도 출산할 여성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임
 - 또한, 혼인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남녀의 비중을 파악하는 것도 대부분의 출산이 혼인한 부부에 의해 이루어

1) 5세 구간 자료에 기초한 합계출산율도 공식적인 합계출산율과 매우 유사한 추이를 보였는데 2020년과 2021년의 합계출산율은 각각 0.84, 0.81이나 5세 구간 자료에 기초한 합계출산율은 0.83, 0.80으로 산출되었음
 2) 가임기 여성 전체 출생아 중 30~34세의 여성이 출산한 아이의 비중은 2009년 43.3%, 2021년에는 44.3%에 이룸

어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임

- 특히, 혼인과 출산을 한 번이라도 경험할 확률을 산출한다는 것은 반대로 혼인과 출산을 하지 않을 확률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혼인기피 현상의 심각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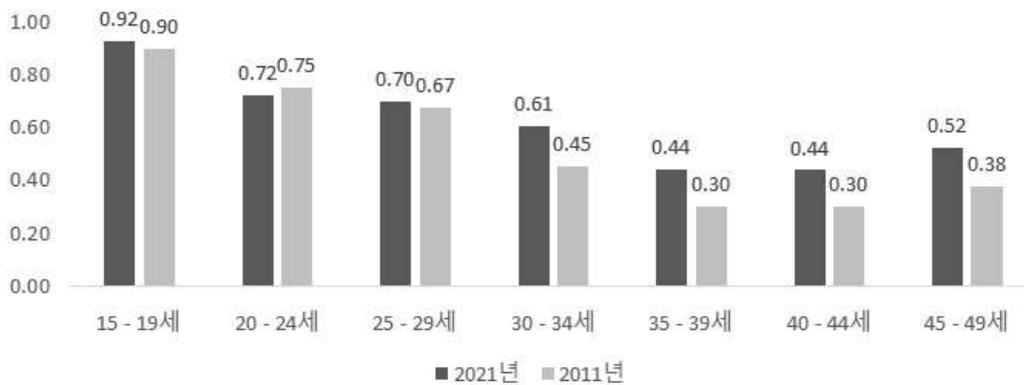
2. 출산참여 확률

○ 산모가 20대인 경우 출생아 중 첫째 아이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이후에는 둘째 아이 이상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그림 2〉 참조)

- 2021년 출생아 중 첫째 아이의 비중은 산모의 연령이 20대인 경우 70%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30~34세 0.61, 35~39세 0.44으로 급속히 낮아지고 있음
- 출산 연령이 늦어지고 한 아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2021년 30세 이후 첫째 아이 비중은 2011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가임기 중 가장 높은 연령대인 45~49세에서 전체 출산 중 첫째 아이의 비중이 2021년에 절반을 넘어서는 기현상³⁾이 나타남

〈그림 2〉 여성 연령대별 전체 출산에서 첫째 아이의 비중(2021년)

(단위: 비중)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급속히 하락하면서 여성이 한 번이라도 출산을 할 확률도 낮아지는 추세를 지속하여 2020년부터는 그 확률이 50% 이하로 하락함(〈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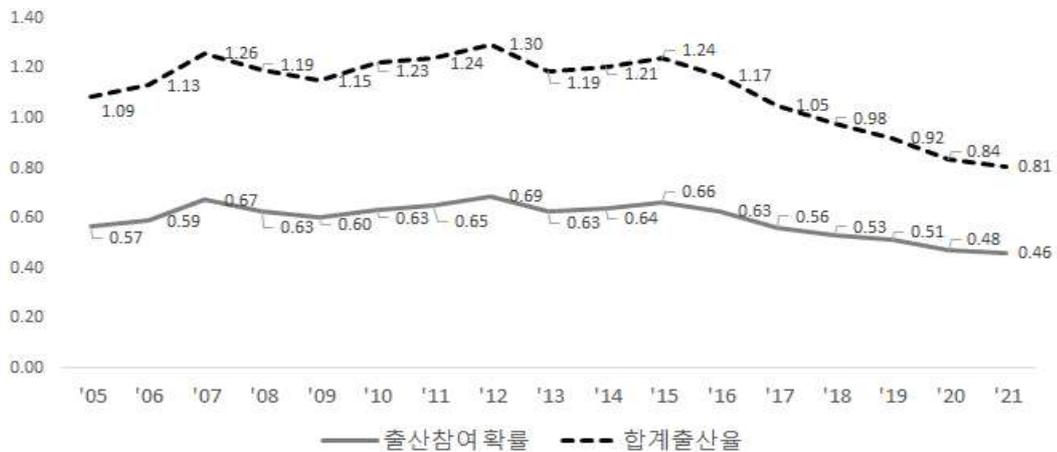
- 가임기 여성의 연령대별 첫째 아이 출산율의 합계를 통해 여성이 평생 동안 출산을 경험할 기댓값 즉, 확률을 산출할 수 있으며 본고는 임의로 이를 ‘출산참여 확률’이라 명명함

3) 45~49세 여성이 출산한 아이는 2021년 총 362명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189명이 첫째 아이인 것으로 나타남

- 합계출산율과 첫째 아이 기준 합계출산율 즉 ‘출산참여 확률’의 추이는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한 아이 가정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두 지표 사이의 차이는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0년 합계출산율이 0.9 이하로 하락함과 동시에 여성의 ‘출산참여 확률’도 같은 해 0.5 이하로 낮아져 2020년 0.48, 2021년 0.46을 기록함
 - 이는 절반 이상의 여성이 출산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3〉 합계출산율과 ‘출산참여 확률’ 추이

(단위: 명, 확률(1=100%))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기초로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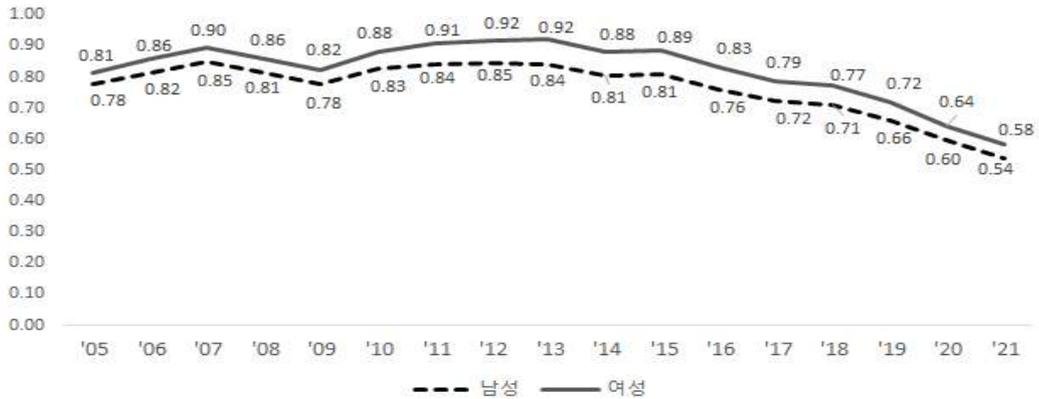


3. 혼인참여 확률

- 합계출산율의 개념을 연령별 혼인율에 적용할 경우 한 사람이 평생 동안 혼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횟수가 산출되며, 이 지표는 2015년 이후 빠르게 하락하여 2021년에 남성은 0.54, 여성은 0.58까지 낮아짐(〈그림 4〉 참조)
 - 연령대별 출산율의 합산이 한 여성이 평생 동안 출산할 아이 수의 기댓값인 것과 같이 연령대별 혼인율의 합산은 한 사람이 평생 동안 혼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횟수가 될 것이며, 본고는 이를 ‘합계혼인율’라 칭함
 - 다만, 합계출산율은 가임기간인 15~49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혼인에는 연령 제한이 없는 만큼 ‘합계혼인율’은 15~74세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산출하였음
 - 합계혼인율의 추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 여성은 2011~2013년에는 0.9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대략 한 번의 혼인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이후 하락세를 지속함
 - 남성의 경우 2011~2013년 기간 0.8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하락하여 2021년에는 여성의 0.58 과 유사한 수준인 0.54으로 낮아짐
 - 다만, ‘합계혼인율’은 초혼뿐 아니라 재혼 등을 포함하고 있어 한 번이라도 혼인을 할 사람의 비중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함

〈그림 4〉 '합계혼인율' 추이

(단위: 확률(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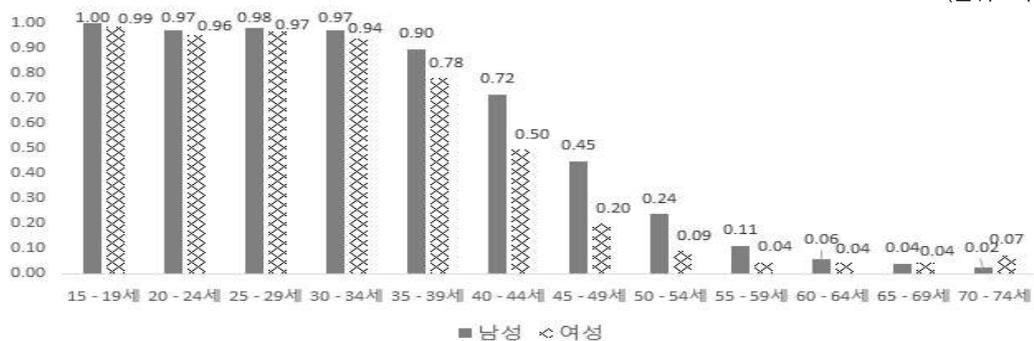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기초로 산출함

○ 30대까지는 전체 혼인에서 초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이후에는 재혼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그림 5) 참조

- 34세까지는 남녀 모두 전체 혼인에서 첫 번째 혼인(초혼)의 비중이 0.9를 크게 상회하여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5세 이후에는 대부분의 혼인이 재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혼인 연령이 낮은 관계로 동일 연령대에서 초혼의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

〈그림 5〉 전체 혼인에서 첫 번째 혼인의 연령대별 비중(2021년)

(단위: 비중)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2011~2013년 기간 중 우리나라 남녀 모두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혼인할 확률은 70% 이상이였으나, 이후 낮아지면서 2021년에는 남녀 모두 혼인할 가능성이 절반 미만으로 하락함(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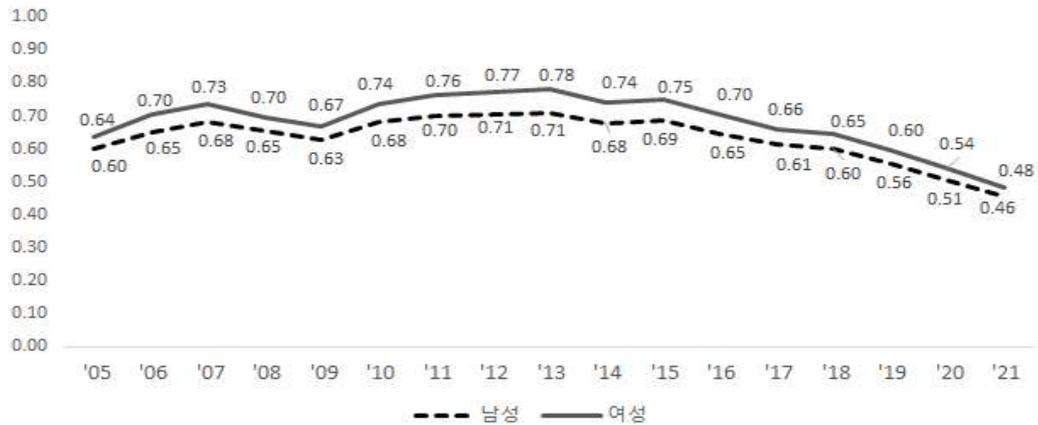
- 연령대별 첫 번째 혼인율의 합산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각각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혼인을 경험할 기댓값(확률)을 산출하고, 이를 '혼인참여 확률'이라고 명명함
- '혼인참여 확률'은 여성의 경우 2010~2016년 동안, 남성의 경우 2011~2013년 동안 0.7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급속히 하락하면서 2021년에는 0.5를 밑도는 수준으로 낮아짐

- 2021년 기준 ‘혼인참여 확률’이 0.5 이하라는 것은 우리나라 남녀 모두 절반 이상이 평생 동안 한 번도 혼인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6〉 우리나라 남녀의 ‘혼인참여 확률’ 추이

(단위: 확률(1=100%))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기초로 지표를 산출함



4. 시사점

-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의 배경에는 혼인과 출산에 참여할 것 인구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인구 구조상 매우 열악한 상황이 자리하고 있음
 - 본고에서 산출한 2021년 ‘혼인참여 확률’은 남성 0.46, 여성 0.48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의 54%, 여성의 52%가 평생 동안 한 번도 혼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출산참여 확률’도 0.46으로 나타나 54%의 여성이 출산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과반수가 혼인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은 향후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출산율을 회복하여 인구 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함
- 향후 우리나라는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보장 확대’보다 ‘부담 가능’의 문제가, 인구 문제에 있어서는 ‘출산 장려’보다 ‘이민 수용’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음 세대의 급속한 위축은 우리나라 복지 문제에 있어서 보장을 확대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현재의 보장 수준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 것임
 - 특히 향후 무자녀·무연고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 복지 부담을 급속히 가중시킬 수도 있음
 - 인구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 내부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향후 보다 전향적인 이민의 수용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준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